



韓國輸出包裝工業株式會社

“미래지향의 세계최고 선진기업”

www.keppack.co.kr



한 국수출포장공업(주)은 1957년 골판지상자 공장 설립이후 발전을 거듭하여온 국내 유일의 골판지원지에서부터 골판지상자까지 일관하여 생산하는 골판지포장 전문업체로서 국내의 선두기업이며 골판지포장업체의 미래지향의 선진국형 기업이다.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은 최첨단의 자동화 공장으로써 수주에서 납품까지 모든 공정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고의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STEP(Stable, Trust, Extensive, Progressive) COMPANY 경영혁신의 슬로건 아래 사업장간 벤치마킹으로 끊임 없는 개선과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업활동으로 세계최고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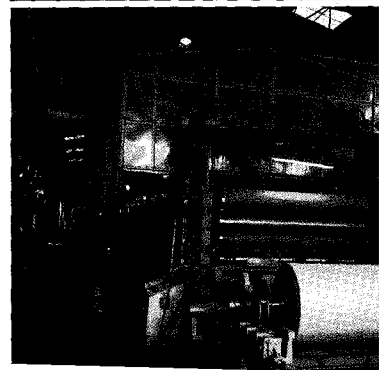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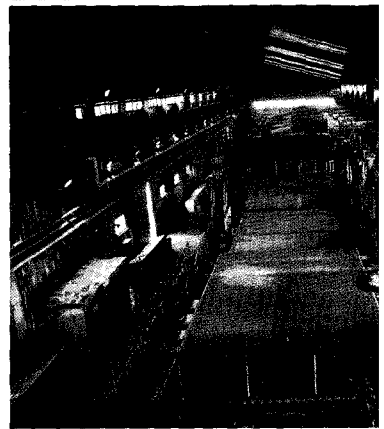


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호에서는 언제나 신용과 전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기로 고객 여러분의 생산성 및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본사를 방문하여 허용삼 대표이사, 허정훈 부사장과 안용수 상무이사 등의 임원을 만나 STEP COMPANY를 추구하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지나온 길과 미래지향의 선진기업 경영방침에 대하여 들어봤다.

 **회사연혁**

- 1957.11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설립
- 1964.03 부산공장 골판지 원지 제지공장 준공
- 1974.06 기업공개, 한국 증권거래소 주식상장
- 1975.12 오산공장 골판지 상자 공장 준공
- 1977.09.13 에너지 절약상 (국무총리)
- 1985.11.13 제 22회 수출의 날 표창 (원상공회회의소)
- 1986.03.03 조세의 날 표창 (재무부 장관)
- 1988.07 전 업무 자동화 IBM 38 SYSTEM 설치
- 1988.10.09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 1990.02.27 중소기업 지위향상과 국가경제 개발표창
- 1990.03.02 제 17회 상공의 날 표창 (상공부 장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 1994.01 안성공장 골판지 상자 공장 준공
- 1995.05.05 제 73회 어린이날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 1996.03.20 제 23회 상공인의 날 금탑산업훈장 (대통령)
- 1997.03 제 6회 경제정의 기업상 수상 (경실련)
- 1997.03.03 조세의 날 표창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 1997.08 양산공장 골판지 상자 공장 준공
- 2001.11.08 경영혁신부분 최우수상 수상 (한국능률협회)





◆ 사 훈

근면, 성실, 봉사

◆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지나온 길은 ?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50년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는 산증인이자 발자취를 보여주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모체인 부산공장은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1962년 2월에 골판지 및 상자 제조공장 조업을 개시하고 1964년 3월에는 골판지원지 제조공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4년 골판지원지 제조 설비의 증설을 계기로 보다 좋은 양질의 원지생산 전문업체로 성장을 거듭 하였으며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외부 포장재인 고평량(300g/m²)의 표면용 원지를 생산하고 연간 원지생산 43,000M/T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장인 만큼 부산 및 경남 지역의 환경 사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1965년도 10월에 KS표시 허가를 받았으며 1983년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골판지 제조기기 보수 및 증설작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 최고 품질의 골판지 원지를 생산, 공급 하고자 전인력을 부산의 핵심기술기업으로 있습니다.

1993년 8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안성공장은 공장물류자동화 시설을 갖춘 최고 품질의 골판지 원단 및 상자를 제조하는 공장이며, 국내 최초로 골판지 원단 생산공정에서부터

인쇄공정 및 상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제조과정을 최첨단 물류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골판지제조기(CORRUGATOR) 1대(폭 1,800m/m)와 최첨단 인쇄기 4대를 보유하여 최상의 품질을 지닌 제품 생산에 전 종업원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산품 및 농산물의 외부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연간 95,000,000m²를 생산하여 정확한 납기일에 제





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골판지상자 생산공장인 안성과 양산공장에서 최상급의 원자재로 상자와 원단, 부속물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골판지원지 공장인 부산과 오산에서 라이너지 및 강화골심지 등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지에서부터 골판지원단, 상자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체제의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중부권 골판지상자 공장 자동화 생산설비 2차 증설에 착수하고 있으며, 신설공장 준공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골판지산업의 종합 메이커로써 기틀을 더욱 다지고 고객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허용삼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은 ?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

모든 제품의 설비도 갖추려면 제대로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려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자는 허용삼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보통 사람의 향내가 어우러지는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의 경영철학은 우리 골판지포장업인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들렸다. 그는 이런 신념으로 30년 동안 골판지포장업계에 종사해 오고 있다. 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중앙고등학교 졸업 후 부친이신

허석락 회장님께서 57년 창업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자재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그 당시 수출품을 가마니에 담아 내보내는 것을 보고 수출용 포장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골판지포장업체인 한국수출포장을 창업하신 허석락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인 만큼 과장이나 부장으로 입사할 수도 있었지만





말단직원으로 들어가 바닥에서부터 생산직원으로 직접 기계를 돌리고 골판지상자를 나르며 몸소 느끼고 실천을 통하여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의 경영철학을 완성하였다.

허용삼 사장이 82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부산과 오산에 2개 공장만이 있었다. 경영전권을 물려받은 뒤 수직계열화에 의한 사업확장에 나서 골판지원지에서 원단 및 골판지상자에 이르는 완제품을 모두 생산해야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안성과 양산에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골판지상자의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회사보다 값싸고 품질이 월등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다. 이러한 예상은 적중하였고 그 당시까지 사용되던 사과 등을 담던 나무상자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자취를 감췄다.

골판지상자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는 만일 골판지포장업체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상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TV, 냉장고, 오디오를 비롯한 전자제품은 당장 포장재를 찾지 못해 유통이 중단될 것이고 아니라 과자, 농산품, 음료수, 의류 등의 유통도 대혼란을 겪게 되며 수출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물류포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인 만큼 시장성은 매우 밝다고 볼 것이다. 대신 골판지상자는 일회용인만큼 값이 싸야 하므로 이를 위한 수직계열화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게 적중하였다.

또한 “신뢰와 봉사” “성실과 검소”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허용삼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원 모두가 한마음 한가족이 되어 수요자에서 좋은 제품과 신의로써 봉사할 때 우리나라의 제품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지론은 가지고 꾸준한 연구개발 및 노사화합에 힘쓰고 있었다.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경영의 기본방침 ?

“생산은 노력” “품질은 정성” “발전은 개혁”으로 달성되는 바,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매출 신장에 주력하고, 품질 제일주의를 지향하며, 품질과 서비스 제일주의로 정당한 가격에 수익성 극대화와 개인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강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 고객을 위한 경영방침은 ?

우리회사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골판지포장 사업분야에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영업체제를 구축하고, 최첨단 생산 시스템 가동은 물론 완벽한 품질과 고객만족을 통한 서비스 지향으로 21세기 선두 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포장공업(주)는 노력, 개혁, 정성을 다하는 회사로서 안전을 약속하는 회사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으로 이웃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하며 명실공히 깨끗한 회사로 여러분께 다가 갈 것입니다.

◆ KEF 지난해 사업성과와 실적은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국내의 골판지포장산업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난해 110,514백만원 매출액에 13,440백만원의 영업이익과 6,49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KEF 지난해 한국능률협회로부터 2001 생산혁신TPM 사업부문상 수상 하게된 성과는 ?

99년 전사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 총업원 스무명 3정(정위치, 정품, 정량) 5S운동(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에서부터 생산성 향상, 준비요수절거, 가동율 증가, 준비교체 시간 단축 및 불량률 저감방법 등 각 사업장별로 수백 건씩 제시되는 제안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다는 점이 수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KEF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앞으로의 계획은 ?

오산공장의 골판지원지 생산시설에 170억원을 투자해 골판지원지 생산능력을 하루 490톤에서 650톤으로 160톤 늘릴 계획이며, 오산공장 설비증설로 인한 생산성 증대로 안성과 양산공장의 골판지포장 제조에 필요한 골판지원지의 부족분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백억원을 투입, 중부권에 골판지 포장 공장을 신설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공장이 2003년 말께 가동되면 골판지포장 생산량이 연간 2억㎡에서 3억㎡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회사는 오산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2003년엔 골판지상자 공장도 중부권 지역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성공장은 경기도, 서울, 강원도 지역을 영업망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양산공장은 경남과 부산, 경북, 전남 일부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3년 중부권에 신설될 공장은 대전 이남권에 설립될 예정이며 충청과 호남 지역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며, 연간 원지 20만톤을 생산하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는 오산공장의 증설로 인하여 33%의 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객만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

최근 들어 식품, 음료, 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업체에 납기와 관련 안전한 공급을 위해 증설이 불가피 하며, 거래처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능하다면 생산지 가까이 공장을 두고 적기에 납품하는 공급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골판지를 저비용으로 만들어 제조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용삼 사장님은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을 만드는데 강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 전국 10개 생산시설 갖추는 게 꿈인 허용삼 사장님 !

허용삼 사장님은 IMF로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부산공장의 골판지원지 생산능력을 IMF이후 하루 1백톤에서 1백30톤으로 증설하였다. 오산공장도 하루 420톤에서 490톤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의 포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전국에 10개의 골판지포장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골판지상자의 경쟁력은 생산원가절감뿐 아니라 물류비용을 줄이고, 기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으며, 특히 수요업체들이 자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단기 납품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권역별 생산체제를 갖추는 게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령고사는 지역별 생산 및 유통체제를 갖춰 일본내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력없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쓰러지고 경쟁력있는 업체로 주문이 더욱 몰리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허용삼 사장님이 그렇다고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품질 고급화에도 정열을 쏟고 있다. 개발중인 강화골심지가 대표적인 예. 골심지 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상자강도가 높아져 내용물 파손을 막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표면지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골판지포장 선두기업으로서의 자랑할 점은 ?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모든 공장은 국내외 골판지포장기업의 주요 방문업체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허용삼 사장은 항상 최고의 골판지포장을 만들기 위하여 특히 양산공장을 아직 일본업체도 갖추지 못한 첨단시설로 전자동화 공장으로 구축하였다. 이 공장은 골판지원지와 골심지를 투입, 원단을 만들고 인쇄공정을 거쳐 상자가 되어서 나오는 라인으로 총 길이

가 2백m에 이른다. 상자는 곧바로 트럭에 적재할 수 있게 돼 있다. 적어도 40명 정도가 붙어 일을 해야 했으나 자동화로 무인운전이 가능해졌다. 이 라인은 이 회사의 안성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것이다. 양산공장은 자동화 시설에만 총 50억원이 투입됐다. 이 설비를 건설키로 했을 때 주위에선 모두 말렸다. 그 돈이면 CORRUGATOR를 하나 더 놓지 뭇 하러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허용삼 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이 완료되면 일관생산체제에 완전자동화가 가능, 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확신했다. 일관생산체제는 종이에서 상자까지 모두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수집된 골판지폐지를 재활용, 골판지 원지와 골심지를 만들고 이를 원재료로 원단과 상자까지 제조한다. 단일기업안에 이런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회사는 국내기업 중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이 거의 유일하다.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

우리회사에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전 사원 경조금 및 재해보상금, 치료비, 보조금 지급과 후생복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사주 제도에 의한 전 사원이 회사 주식보유로 주인의식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원 해외연수로 기술축적을 도모하고 있고, 전 사원 1박2일 공장견학 및 지적(積)관광에 의한 사교육과 전 관리직원 1인 1PC 지급으로 사무능력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 복지와 교육에도 신경을 써 해마다 20명씩 해외연수를 보내고 사내에서 영어 일어 연수를 시키는 한편 업체의 공정거래질서확립운동을 주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사원자녀 입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교육비부담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사원들의 건전한 오락 또는 취미생활을 위한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전 사원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골판지포장·물류』지에 바라는 것은 ?

『골판지포장·물류』지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허용삼 사장님께서서는 모든 골판지포장기업인이면 누구나 우리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골판지포장·물류』지의 제2, 제3의 후원자이자 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골판지포장산업의 미래는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허용삼 사장님은 꼭 같았다.